

1998년 3월 2일 월요일

사회단신

6기 한총련, 임시의장 선출 물의 빚어

최근 6기 한총련 임시의장 선출에 관해 한총련 내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대, 외대 등의 총학생회는 임시의장 선출과정이 불공정·불평등 했음을 주장하는 3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이들 총학생회는 새로 인선된 6기 임시의장 5기 간부이며 이들을 인선한 중앙상임위원회(중상) 또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중상의 이유로 한총련 6기 1차 중상 회의를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 본래 중상의 참가 구성원 중 전북총련 지역은 의장을 비롯해 전체지역이 탈퇴한 상태이고, 나머지 서총련, 강총련 등의 의장은 아직 선출되지 않아 참석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개최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정치적 목적 평등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갖가지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당면과제를 확인하고 결의한다는 취지로 각 지역에서 기념행사를 벌인다. 중앙 기념대회는 3월 8일, 서울 여의도 주백은행 강당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은 현장 노래대 공연, 일하는 여성상징춤, 여성노동운동의 발자취 슬라이드 상영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실천 의지를 북돋고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 후 가두행진과 옥외집회를 가진다.

그밖에 인천지역에서 4일, 광주지역에서 5일, 마산창원지역에서 11일, 부산지역에서 14일 각각 지방대회가 열린다.

또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해 'IMF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사이버 토론회(나우누리 go women38)가 여성해고 1순위 문제있다'와 '여성의 임시직화! 이대로 괜찮은가'의 두가지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은 여성차별해고에 대한 정부조치와 재벌개혁의 개혁을 촉구하고, 취업알선기능과 실업급여 확대를 촉구하며 여성 스스로 실천의지를 갖게하는 것이라 한다.

□ 경제위기시리즈 I -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경제구조 취약성 드러낸 '예견된 위기'

정부, 기업가, 근로자 합심해 IMF위기 극복 위한 노력해야

◆경제위기 시리즈◆

글 쓰는 순서

- 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② 노사정 화합, 영원한 꿈인가
- ③ 이제 우리가 주체이다

(편집자)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긴급대책마련으로 우리의 경제위기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선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면에서는 경제파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밀어닥칠 파고를 예견하여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문 회 화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발전 모델로 평가받아 모든 개발도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경제가 작년 말 IMF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세계5위권의 채무국으로 전락함으로써 또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란에서는 IMF충격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할 우리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이제 이 위기가 끝난 것인지도 짚어 보고자 한다.

IMF 충격의 원인은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먼저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96~97년 2년동안 일본의 인화는 50% 가량 평가절하 되었고 이 때문에 상품 구조가 비슷한 우리의 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 수출부진은 국내 경기침체의 도화선이 되었고 97년 연말의 대선과 경기 침체로 투자도 급냉각되어 수년이래 가장 심각한 국면이 되었다. 반면 국제수지의 적자 팽창으로 원화의 대미환율이 97년 10월들어 견장을 수 없이 인상된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10월 초순부터 외국투자자의 한국 이탈, 외국은행의 대출회수, 그리고 대외 신규차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고 국내 종금사가 단기 외채를 지불하느라 그나마 부족한 국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함으로써 년초 3백억불대의 외환보유고가 70억불대로 하락해 국가의 대외채무상환불능 위기의식이 국내외로 확산되었다. 이리하여 정부는 경제팀의 교체와 함께 97년 11월 21일 부득이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반면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은행이 2월 24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이 사태를 잘 관리하였다면 IMF 충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지만 IMF 사태 이후 드러난 한국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아나라는 생각되기도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재벌과 기업의 조직과 재정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금융의 부실, 과다한 정부 규제, 높은 임금,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의 기피, 그리고 3D업종의 기피 등으로 나타나는 근로의식의 문제점, 사치 낭비 풍조의 만연, 대외개방의 미흡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부재, 그리고 사회조직에 만연한 부정 부패와 질서의 해이 등을 볼 때 이번 IMF 충격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당연한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5백70억달러에 달하는 국제기금 및 선진국의 지원은 우리의 굳은 각오와 화해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구조적 취약성을 스스로 개혁하는 데 실패한다면 IMF를 위시한 국제적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지난 연말보다 더 심각한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지난 1월 국제

은행채무단과의 협상에서 240억달러의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는 데 합의는 하였으나 2월 27일부터 1백여 개 개별 외국은행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국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지사가 현지에서 조달한 소위 spot financing의 규모도 5백3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환 기일도 임박하고 있다.

IMF 사태의 궁극적 해결은 IMF 사태개시 이후 신규로 차입하게 되는 약 8백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하고서도 외환 보유고가 연간수입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약 4백억달러 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경상수지가 2000년까지 약 1천억달러정도의 흑자를 내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아무리 원화가 평가절하되더라도 수출신장에 따르는 성장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수입의 증가로 대규모 경상흑자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이번엔 늘어난 외채를 보다 장기에 걸쳐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IMF 등이 요구한 구조개혁을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채의 즉각상환을 요청하지 않게끔 하고 동시에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정

부를, 기업가, 근로자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때만 국가부도의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직장을 잃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량의 구인정보까지 비축한 전략형 컴퓨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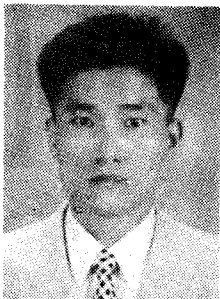
이곳에 매일 들른다는 김아무개씨는 "얼마전 명예퇴직을 당하고 나니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다녔던 중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뜻이 잘 맞아 등산회도 만들어 함께 산도 탈 예정이었다"고 한다.

매일 약 20여 명 정도가 찾아오며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 1천3백여 명이 재취업의 기회를 나누자는 자의 표정을 짓고는 있었지만 이 대표의 얼굴 한 구석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바로 한 달에 5백여 만원의 적자 때

강 단 시 론

김 기 국

(불어불문학과 교수)



언젠가 친구 하나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만 말해 보라"고 했다. 이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어려움, 즉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결코 최상, 최선이 아니라는 당혹감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물음 속의 3개라는 여유로운 숫자로 하여 나는 진지한 선택에 몰입할 수 있었다.

내가 떠올린 최초의 답, 이것은 거의 반사적으로 입을 통해서 발음되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떠올리고 되뇌일 때마다 나는 두근거리고 설레이며 벅차오르는 감정의 파문을 느끼게 된다.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론적이고 또 경험적인 차원을 떠나서, 가슴을 적셔오는 부드러운 그 무엇, 봄날의 나른함을 파란 종소리처럼 박동하게 하는 그 어떤 힘,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슬

프면 한다. 이 투명한 물음 통해 나는 이 땅에 있는 흙과 돌을 바라볼 수도 그 표면에 비치는 높고 푸른 하늘의 싱그러움도 느낄 수도 있으리라. 이렇듯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우두커니 서 있는 나의 상념을 접게 하는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세번째 답을 채근한다.

나는 그 순간 마지막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고 여기서도 말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떠올린 두 대상들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혹은 비현실적이어서 요즘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에서이다. 사실 우리는 오늘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 작년말에 택한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의 총리 인준을 바라보는 정치적 선택, 사회 각계에서 요구되는 인식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택, 또한 IMF 시대에

말하지 못한 나의 마지막 세번째 답

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순수하고 절절한 메아리의 느낌 말이다. 어쩌면 '사랑'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서, 이 단어가 주는 몰개성적인 의미에 식상할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마치 '사랑'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한 번 얻은 후엔 쉽게 버서지는 낙담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이 말은 지고지순한 의미로 항상 곁에 머무르며, 때로는 지친 몸을 감싸주고 때로는 삭막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그 무엇임에 틀림없다.

두번째의 답이 말해지기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나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산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물은 계절과 장소에 상관없이 맑고 차가워 때때로 그 도가 지나쳐 뜨겁기만 한 내 감정의 열기도 식혀주었으면 좋겠고, 내 영혼에 담긴 깨끗하지 못한 세속의 때도 씻어주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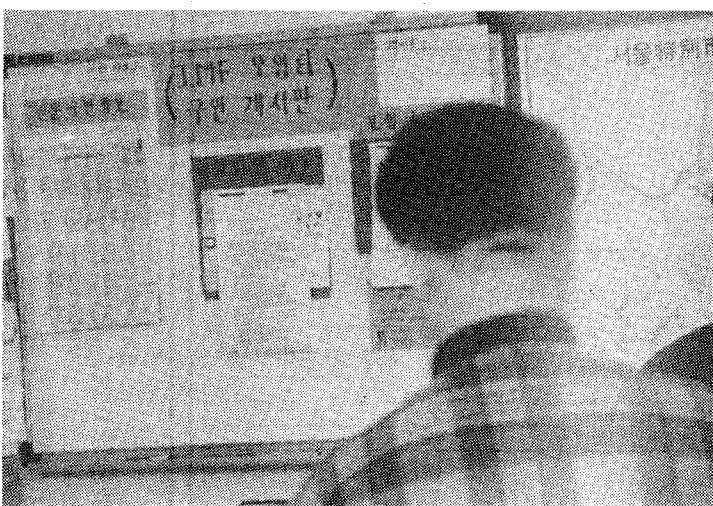
특정한 단체나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 졸업과 입학의 계절에 학생들은 사회전반의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삶을 가져야 하는가 등등의 구체적인 직접 피부에 와닿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대답은 얼마나 비경제적인 것인가?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어느 날 친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답을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떳떳하게 나의 선택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 소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정정당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내일의 삶을 맑고 맑은 사랑으로 꾸꾸하게 가꾸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하고 싶다.

(최현일 기자)

□ 실직자의 쉼터인 IMF모임터에 다녀와서

IMF 위기, 전략형 쉼터로 극복한다



▲한 실직자가 IMF 모임터에 마련된 구인란을 살펴보고 있다.

"한 달에 5백만원씩 적자를 보지만 저는 그들의 축적된 여가를 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5일 양천구 목3동에 문을 연 IMF 모임터의 대표 이성희씨의 말이다. IMF 모임터에 들어서면 '서로 존중' '바른 언어' '재기노력' 그리고 '정결'이라는 4가지 항목이 눈에 띄었다. 40여 평의 넓직한 사무실에 테이블마다 바둑과 장기가 놓여있고 유선 TV까지 비치되어 있어 언뜻 보면 대기업의 휴게실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 3천원에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IMF 쉼터이다. 일반 휴게실과는 달리 이곳은

직장을 잃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량의 구인정보까지 비축한 전략형 컴퓨터이다.

이곳에 매일 들른다는 김아무개씨는 "얼마전 명예퇴직을 당하고 나니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다녔던 중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뜻이 잘 맞아 등산회도 만들어 함께 산도 탈 예정이었다"고 한다.

매일 약 20여 명 정도가 찾아오며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 1천3백여 명이 재취업의 기회를 나누자는 자의 표정을 짓고는 있었지만 이 대표의 얼굴 한 구석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바로 한 달에 5백여 만원의 적자 때

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체를 운영해오다 2억여 원의 부도를 내고 폐업한 실직자인 그에게 매일 날아오는 청구서가 그를 힘들게 한다.

"처음에는 집에서도 난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 가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자는 자의 뜻을 알아준 집사람이 제 든든한 후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대표. 하지만 지난달에는 IMF 쉼터 유지

비를 내기 위해 집 전세를 빼내 반지하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물건은 부도가 나도 사람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이 대표는 "어려운 시대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정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했다.

여러분의 젊음으로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주십시오 21세기문화가족

지금 곧 신청하십시오



21세기의 중심은 바로 대학생 여러분입니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나가십시오.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의 유명 문화예술단체에 원인 초대
- 전국 2100여개의 공연과 콘서트 및 음식점들 원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카드 제공
- 일상의 위안에 대한 다양한 문화로 무료기대(1년, 1355명만)
- 해외출판, 여행사 할인권 및 호텔 할인예약
-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 개최
- 문화공간(98년6월 장안예정) 무료제공

■ 고품격 선물을 드립니다

- PCS폰 제공
- 고급 듀얼타입 손목시계 제공 (회원1355명은 있으나 PCS555은 회원이 1355명 미만으로 남아 시계와 함께 배례로 보내드립니다.)

■ 참여회사

- 제일은행, 한국경제신문사, 동아일보, 코리아하트클럽, 한진그룹, 진정시계

■ 가입비

· 370,000원

■ 회원모집장구

· 제일은행 전국 본지점

■ 회원가입문의

· 21세기 문화가족(02-3446-2100)

· 제일은행 전국 본지점

중심축의 문화생활 21세기문화가족